

입학사정관의 말 01

Q. 진로와 연계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진로와 연계된 과목과 연계가 없는 과목의 평가를 알고 싶습니다.

출처_경기도 교육청 진로직업 교육과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분석>

01. 가천대

가천대학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보이고, 탐구 열정을 보인 주제, 개념, 원리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지원한 계열 혹은 모집단위 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해당 과목의 학업 의지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합니다. 인성과 관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평가에 활용합니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진로와 관계가 있든 없든 평가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로와 관계가 없는 과목에서 계열(전공)적합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학생 관심사가 나타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사가 보이고 학생의 교과 활동에서 그 수업 시간에 얻어야 할 것을 얻었는지, 해당 교과의 역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 건국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진로 관련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과목에서 성취해야하는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특을 통해 진로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나 진로 중심 기재보다는 수업을 통해 관찰되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 태도, 역량 위주로 작성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진로와 연계된 과목은 '진로역량'의 측면에서, 진로와 연계가 없는 과목은 기초 학업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학업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경기대

'진로와 연계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와 연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계열적합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대학교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학업탐구역량' 에 '학업성취수준'과 '계열적합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학생의 학업적 수학능력 및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학업탐구역량' 측면에서 관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에서는 '영어는 영어답게'라는 표현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 교과에서 익혀야 할 핵심역량들이 있습니다. 해당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의 성취수준과 역량들이 기록을 통해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과에 특정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실제로 그 해당 교과에서 익혀야 할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진로융합보다는 교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탐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록이 다양해지길 바라며, 진로와 연계된 과목과 연계가 없는 과목은 '학업성취수준' 과 '계열적합성'에서 각각 '학업탐구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4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진로와 연계성이 높은 과목에 대한 선택과 이수, 그 결과에 해당하는 성적이 모두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전체를 판단하는 데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진로 역량을 드러내는 데에는 관련 과목에 대한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05 고려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과목의 수업시간에 학생이 보이는 수업태도, 탐구력, 학업에 대한 열정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과목의 수행 능력을 위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진로와 연계될 필요는 없습니다.

06 광운대

광운대학교는 서류평가에서 가장 높은 반영비율로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공(계열)의 선택교과는 이수 여부 및 성취도 뿐 만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 진로 관련 분야의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이 드러나는 내용 여부도 특히 중요합니다.

07 국민대

최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리하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보다는 과목마다 설정된 성취기준을 학생이 얼마나 이수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하게 연결하기보다는 교과목에서의 이수 과정, 결과, 실패하였더라도 개선된 모습 등을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성취기준에 따라 얼마나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진로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노력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 동국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진로와 연계된 과목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공적합성은 전공과 관련 교과를 평가하며 해당과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계해서 평가합니다. 또한 학업역량은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기초교과를 바탕으로 한 '기초학업역량'과, 주도적인 과목선택 및 수업참여, 비주요교과에서의 성취 등을 '학습의 주도성' 영역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계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09 명지대

해당 질문 내용 없음

10 서강대

본교는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세특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모든 과목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학생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의 세특을 유기적으로 읽으면서 학생의 학업적 성취나 태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잘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로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과목이든 잘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의미있고 이를 평가하고 있기에 특정 과목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진로와 연계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매몰되지

않아도 됨을 본교의 평가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11 서울대

과목 세특은 과목의 교육과정에 맞게 진행된 수업 과정에서 지원자 개인이 보인 성취수준과 구체적 모습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위적으로 지원자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자칫 서류평가 에서 다양한 수업에서 보인 지원자의 여러 모습을 기재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2 서울시립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고,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참여를 보이는데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로와 연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해당 과목의 특성과 연결되지 않는 전공(계열) 적합성이 기재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과 태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해당 과목의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리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참여 속에서 어떤 진로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화롭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써 진로 연계란 테마를 과도하게 결부시키려 하지 말고 학교생활에서 충실히 학습하고 계발한 과목과 교육활동 전반에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과정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합니다.

13 성균관대학교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경우 탐구역량 측면에서 기초학업과 탐구학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며 연계가 없는 과목은 학업역량 측면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평가되 어진다고 말하기 어렵고 서로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며 평가됩니다. (참고. 성균관대는 2025 대입부터 전공적합성과 계열적합성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에서 삭제함을 공식적으로 선언)

14 세종대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경우, 진로 역량(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 평가가 되고, 진로와 연계가 없는 과목의 경우 학업 역량(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성실성 및 규칙준수, 나눔과 배려, 협업과 소통 능력에서 평가됩니다. 학생부 항목별 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창의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한 종합평가(holistic approach) 됩니다.

15 숭실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진로와 연계된 과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내용을 평가합니다. 모든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은 평가자료가 되며, 수업 안에서 진로와 연계한 탐구 활동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 이수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와 연결한 내용만을 강조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

다. 무엇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은 그 과목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평가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 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진로 연결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16 아주대학교

개인별 세특이 아닌 특히,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즉, 과목별 세특은 과목 이수에 따른 과목에서 함양하고자 했던 교과별 학생역량 및 성취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도달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이 어떤 성취 수준을 보이는가가 우선입니다. 실제로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 교과에서 한 활동과 관련하여, "화법과 작문 :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조를 구성하여 상호소통하며 모의면접을 진행함. 특히 전공관련 이슈에 대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화법과 작문의 수업 목표와 학생의 과목성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7 연세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의 성취수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가능하여 학업 수월성 및 전공 기초소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진로 연계 여부보다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학습과정,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의미를 두어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생활의 충실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목의 진로 연계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8 이화여대

본교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전공적합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이때 계열적합성 정도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교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와 연관된 과목만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진로와 연계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도 없습니다.

19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택교과 이수 및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연계·확장·응용해가는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이에 따라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확장·응용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과에는 성취수준 및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로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각 교과의 성취수준 및 목표를 학생이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그리고 그 성취가 진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술이 이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20. 중앙대

고교에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다양한 교과를 이수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특정 모집단위와 특정 교과만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통, 일반, 진로선택 등 다양한 교과를 배우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수하는 모든 과목을 통해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기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모든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전체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교과를

통한 학생의 관심사의 심화와 확장, 교과를 통해 성장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 켄텍(한국에너지 공과 대학교)

에너지공학은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공학 분야이므로 고등학교의 특정 진로 연계 과목 또는 선택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보다는 이수한 과목의 성실한 이수와 특이점을 주로 살펴봅니다.

22 한국외대

진로역량을 통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노력, 성취도와 진로 탐색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진로 및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지원자의 진로 및 계열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과 다양한 경험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진로와 연계되지 않은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역시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 간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3 한양대

한양대학교는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학과는 [수학, 과학] 역량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며, 인문계열의 학과는 [언어, 외국어, 사회] 역량에 있어서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 [언어, 외국어, 사회, 수학]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연계성보다는 계열에 맞는 교과적 특성 및 강점이 있는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합니다. 예컨대, 물리와 관련된 여러 활동과 역량을 보여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학생이 화학과를 지원해도 해당 역량에 대해서는 과학 교과에 대한 역량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 홍익대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과 경험은 진로 연계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연계가 없는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교생활 충실, 적극적 참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